

지난날의 열성을 다시 한 번 모읍시다!



정건섭

연세대학교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부회장

2008년도를 마무리하며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여러 생각들이 우리에게 기억되지만 우리 학회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일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커다란 자부심인 JMB(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가 1998년 SCI로 인정받은 후 지난 해에는 impact factor 2.037로 국내 최고의 우수학술지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medline에 등재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였나요? 지난 3월에 갑자기 Thomson Reuters사로 부터 우리 학회지의 self-citation rate이 높기 때문에 SCIE로 내려가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 학회 회원 모든 커다란 충격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장년의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창립 당시인 1973년에 100여명이었던 회원수가 현재는 3,000여명으로 성장, 학회지의 국제화에 따른 질적 및 양적으로 발전, 학술발표회에서 session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학회사무실의 행정 체계화 등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해왔음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학회 성장은 역대 학회 장님들과 학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로 우리 학회의 커다란 자부심인 것 입니다.

한편, 돌이켜 보건데 우리 학회의 성장과 발전과정 중에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mannerism에 안주하여 있지는 않았었나하는 자성의 생각을 해 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에 우리 모두는 당혹해 하였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이제는 당혹에서 벗어나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미진하였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입니다. 우리가 JMB를 SCI에 등재시키기 위하여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결속하였던 지난날의 열성을 다시 한 번 모은다면 JMB의 영광을 되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JMB 편집업무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자, 편집간사, 편집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기꺼이 우리 학회의 JMB에 투고해주시는 학회 회원 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만이 짧은 시일 내에 이 난관을 극복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나무에는 매듭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강한 바람에도 대나무를 굳건히 서있을 수 있도록 하는 강건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우리들의 열과 성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8년 한 해 동안의 우리 학회를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또한 학회운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헌신해주신 2008년도 이정국 간사장님을 비롯한 20분의 간사님들의 노고에 진정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우수한 연구 성과 이룩하시길 소망합니다!